

단독가구 남녀노인의 부부간 의사소통·의사결정 참여 및 가정생활만족도

이정우 (숙명여자대학교 가정·아동복지학부 명예교수)
박은아* (숙명여자대학교 가정·아동복지학부 강사)

본 연구는 노부부만 생활하는 단독가구 남녀노인을 대상으로 부부간 의사소통, 의사결정 참여 및 가정생활만족도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해 봄으로써 단독가구 노부부의 상호작용 및 가정생활을 이해하고, 이들 결과가 행복한 노년의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를 두었다.

이를 위해 만 60세 이상 80세 미만의 단독가구 남녀노인 394(남: 186, 여: 208)명을 대상으로 SPSS/PC WI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신뢰계수(Cronbach's α),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 t-test, 요인분석(Factor Analysis),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등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단독가구 남녀노인의 부부간 의사소통은 남녀 모두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녀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그리고 남녀노인 모두 가정 내 의사결정 시 비교적 부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녀간의 차이는 없었다. 또한 남녀노인 모두 대체로 자신의 가정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녀간에 유의한 차 이를 보여 여자노인에 비해 남자노인의 가정생활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둘째, 단독가구 남녀노인의 부부간 의사소통에 대한 배경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남자노인의 경우 부부간 친밀감, 자아존중감, 성역할태도가, 여자노인의 경우에는 부부간 친밀감, 건강상태, 관계지향성, 단독가구 지속의향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의사결정 참여의 경우, 남자노인에게는 성역할태도, 부부간 친밀감이, 그리고 여자노인에게는 부부간 친밀감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단독가구 남녀노인의 의사결정 참여에 대한 부부간 의사소통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남녀노인 모두 부부간 의사소통 일치도가 높을수록 가정 내 의사결정 사항들에 대해 부부가 함께 참여하고 결정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가정생활만족도에 대한 경로모형 도출 결과, 남녀노인 모두 의사소통 변인에서는 의사소통 일치도와 의사소통 개방도가, 그리고 의사결정 참여 변인에서는 남자노인의 경우 여가생활 의사결정 참여가, 여자노인의 경우에는 가족생활 의사결정 참여가 매개변인으로서 가정생활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부부가 가정생활의 운영 주체가 되는 단독가구 노부부의 삶은 원활한 상호작용을 통해 친밀한 부부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가정생활에서의 만족이 총족될 때 더욱 성공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를 고려한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등을 확대·지원하여 단독가구의 노부부가 길어진 노후 가정생활을 더욱 만족스럽게 보낼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노인복지의 기반을 조성해 주어야 할 것이다.